
국제무역 및 경제세계화 통계에 관한 UN 전문가그룹회의 참가결과 보고

Membership and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Expert Group
o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Globalization Statistics

(2016. 1.26. ~ 28., UN)

2016. 3.



경 제 통 계 국
소 득 통 계 과

차 례

| | |
|------------------------------------|----|
| I. 출장개요 | 1 |
| II. UN 전문가 회의 | 1 |
| 1. 회의개요 | 1 |
| 2. 회의주제 및 일정 | 2 |
| III. 회의 주요 결과 | 2 |
| 1. 편람(Handbook) 내용 | 2 |
| 2. 편람 작성과 향후 일정 | 4 |
| IV. 세부 회의 내용 | 5 |
| 1. 회의 개괄 | 5 |
| 2. 국제 무역 및 경제 세계화에 대한 정책적 의문 | 6 |
| 3. 거시 경제 계정 | 7 |
| 4. 통합 기업 국제 무역 통계 | 10 |
| 5. 부가가치 사슬 위성 계정 작성 | 14 |
| 6. 향후 계획 | 15 |

붙임. 회의참가자 명단

I. 출장개요

- (출 장 자) 김현, 김영훈
- (출장기간) 2016.1.25.(월) ~1.27.(토)
- (출장목적) 국제무역 및 경제세계화 통계에 관한 전문가그룹회의 참가
- (출장지역) 미국 뉴욕

II. UN 전문가그룹 회의

1. 회의개요

- (목적) 국제무역 및 경제세계화 측정을 위한 확장 국제·글로벌 계정 편람 작성 준비
- (연혁)
 - 2015년 3월 UN 통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편람작성을 위해 국제무역 및 경제세계화 통계 전문가 그룹 창설
 - 2016년 1월 첫 회의 개최
- (주관) UN 통계국
 - * 의장: Michael Connolly(아일랜드)
- (기간) 2016.1.26.(화) ~ 28.(목)
- (장소) 뉴욕 UN 본부
- (참가자) 20개국, UN, OECD, IMF, Eurostat 등 7개 국제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총 35명 참가
- (기대효과)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여 국제무역 및 경제세계화 통계 관련 최근의 연구성과, 각국의 사례 등을 파악하여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TEC) 개발에 반영하고 지역소득통계의 품질 제고 도모

2. 회의주제 및 일정

□ 일시 및 주요내용 : 1.26. (09:30) - 1.28. (16:30)

| 일시 | 주요내용 | 발표/사회 |
|--------|-------------------------------|----------|
| 26일 오전 | ▪ 환영 인사 및 회의 배경 | UNSD |
| | ▪ 경제세계화 거시 및 위성 계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 UNSD |
| | ▪ 거시 계정 : 정책적 의문 | UNSD |
| | ▪ 위성 계정 : 정책적 의문 | Canada |
| 26일 오후 | ▪ 글로벌 투입산출표 | Eurostat |
| | ▪ 부가가치 기준 무역 | OECD |
| | ▪ 확장 국제·글로벌 계정의 체계 | UNSD |
| 27일 오전 | ▪ 글로벌 생산 형태의 유형 | Ireland |
| | ▪ 글로벌가치사슬의 지배방식(Governance) | UNSD |
| | ▪ 글로벌가치사슬 분석 | MIT |
| 27일 오후 | ▪ 다국적 기업통계와 미시자료의 연결 | US BEA |
| | ▪ 분류 | Denmark |
| 28일 오전 | ▪ 글로벌가치사슬 위성 계정 | UNSD |
| | ▪ 북아메리카 글로벌가치사슬 | Canada |
| 28일 오후 | ▪ 정리 및 향후 일정 | UNSD |

III. 회의 주요 결과

1. 편람(Handbook) 내용

□ (배경) 편람의 배경은 세계화 측정에 대한 정책적, 통계적 필요성

- 정책적 필요성 : 세계화를 거시경제, 산업, 기업 바탕으로 측정하기 위한 확장 집합체(set)에 대한 요구
- 통계적 필요성 : 공식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시경제·부문별 계정 통계와 함께 기업 통합과 조화(harmonization)를 기초로 한 통계에 대한 강조

□ (주요내용) 편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역 및 세계화 측정을 위한 글로벌가치사슬(GVC) 접근방식에 대한 정책적, 통계적 배경

- 확장 국민·글로벌 계정의 일반통계 구조틀
- 공급사용표(SUT), 투입산출표(IOT)와 관련된 확장 국가·다국가 GVC 산업에 대한 글로벌가치사슬(GVC) 위성 계정
- 국민·글로벌 기업명부(Business register)에 대한 필요성과 분류기준, 기업, 투자, 무역통계 통합에 관한 구조틀

□ (작성방향)

- 확장 국민·글로벌 계정의 일반 통계 구조는 기존의 통계 표준과 국제 권고를 바탕으로 작성될 것임
- 글로벌 공급사용표(SUT)와 투입산출표(IOT)는 "Full International and Global Accounts for Research", "World Input-output Database", "World KLEMS", "OECD-WTO Trade in Value Added(TiVA) database" 등과 같은 다양한 기존 자료를 포괄해야 함
 - 이는 무역의 쌍방 비대칭과 같은 현상에 대한 식견을 제공해줌으로써 통계의 품질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장 계정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 확장 국민·글로벌 공급사용표(SUT)와 투입산출표(IOT)는 OECD 전문가 그룹의 작업을 참고할 수 있고, 기업, 투자, 무역통계 및 거시경제계정으로부터 핵심 지표를 찾아낼 수도 있음
- 통합 기업, 투자, 무역통계는 확장 계정의 주춧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기업특성별 서비스무역통계(STEC), 기업 기능 국제 조사* 등과 같은 통계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이와 같은 통계의 작성에서 다음의 문제들도 고려해야 함
 - * 기업 기능 국제 조사 목적 : 생산 과정에서 아웃소싱 가능한 서비스 요소 파악
 - 무역과 투자통계 연계와 다국적 기업, 외국 법인, 기업 규모 식별에 대한 기업명부(business registers) 개선
 - Euro-그룹 명부를 추가 개선하여 글로벌 기업 그룹 명부 작성
 - 일관성 있게 양국간 무역 및 투자 비대칭 조정

- 기업 기능 국제 조사에 대한 표준화
- 마이크로데이터 사용과 접근에 관련하여 비밀보장 문제 강조
- 기초 데이터가 없는 경우 간접 추정 방식 권고
- 글로벌가치사슬(GVC)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은 GVC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함께 편람의 중심 주제가 될 것임
 - 제품의 구상, 디자인부터 최종시장까지 생산의 투입-산출 관계
 - 기업 기능을 통해 살펴본 기업의 위치(arrangement)
 - 외국인 소유권을 포함한 지배관계
 - 글로벌 생산과 투자, 무역에 대한 제도 및 규제 환경
- 따라서, GVC 위성 계정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활동, 중간재의 공급과 사용, 최종시장에서 최종 산출, 소유권, 기업크기, 무역강도 등의 기업 이질성 관점에서 서술될 것임
- 편람은 GVC 위성 계정의 세부적인 예를 다룰 것임. 농식료품, 섬유, 의류, 자동차, 에너지, 의약, 관광 산업 등과 같은 산업들이 GVC 산업의 예가 될 수 있음
- 편람의 정확한 제목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제목에 글로벌가치사슬의 개념은 반영될 것임

2. 편람 작성과 향후 일정

- (진행방향) 편람의 개발은 Steve Landefeld, Michael Connolly, UN 통계국 직원과 몇몇 알려진 저자들이 포함된 핵심 편집 위원회에서 진행
 - 편람 초고의 일부분은 전문가 그룹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 편람의 틀이 개발되고, 동의되면 편집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도움 요청 예정
 - 이번 회의에서 IMF, OECD, Eurostat는 금융계정, 확장 공급사용표, 기업 그룹 명부 주제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음. 캐나다 통계청,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이탈리아 통계청 또한 초고 작업에 참여 예정
 - 유엔 통계국은 이탈리아 통계청, 캐나다 통계청, 멕시코 통계청과 협력

하여 몇몇 GVC 산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준비할 예정. GVC 부문 위성 계정의 개발과 검증은 통계 및 학술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함

- 잠정적이지만, 온라인 포럼은 경제성장, 일자리, 천연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GVC 측정 주제를 올해 연말까지 지속할 것임
- **(향후일정)** 전문가 회의의 결과는 유엔 통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편람 초고에 대한 의견은 3월 중순까지 접수 예정
 - 유엔통계국은 4월 중순까지 몇몇 GVC 부문 위성 계정 준비와 관련된 제안과 다음 전문가 회의 의제, 일정에 관한 의견 접수 예정
 - 전문가 그룹은 편람을 2018년 중반까지 완료하고, 2019년 통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IV. 세부 회의 내용

1. 회의 개괄

- **(GVC)** GVC의 필요성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
 - 글로벌가치사슬 접근방식의 장점
 - 글로벌 생산의 복잡한 산업간 상호작용 밝힘
 - 상품과 서비스의 구상부터 최종상품까지, 지리적으로 떨어진 활동들과 행위자들간의 연결 제공
 - 국민 및 글로벌 관점에서, GVC로 국가들의 통합은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반면, 생산성, 국민소득, 고용, 자본의 증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많은 부분을 GVC가 설명가능
 - GVC 경제의 상호의존성에 증대의 결과로서, 무역 정책의 초점은 국내 생산자보호에서 소비자, 취업자, 환경 보호로 이동함

- GVC의 영향 때문에, 양자 관계의 국제계정에서 지구적으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기업간, 기업내 네트워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글로벌 계정으로 이동 필요
- GVC 위성 계정은 다양한 GVC에서 해당 국가의 현재 위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정책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재화 처리과정은 무역 비대칭이 조정되고 국민 SUT와 IOT를 표준화한 세계 투입산출표 데이터베이스(WIOD)와 OECD-WTO TiVA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글로벌 계정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음
 - 확장 SUT에 대한 OECD 전문가 그룹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개념적 GVC 모델을 바탕으로 확장 국민 SUT와 특정 GVC 산업들에 대한 확장 통합 경제 계정의 표준화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전문가 그룹은 특정 GVC 산업들에 대한 확장 SUT와 확장 통합 계정을 국민계정의 관점으로 서술하는 것에 동의함. 또한 전문가 그룹은 관련된 정책적 질문, 방법론, 분석단위, 분류, 기초자료, 핵심 지표와 품질 문제도 강조했다
- 전문가 그룹은 확장 계정과 기존 계정간의 연계 필요성과 통합 기업, 투자, 무역통계와 국민·글로벌 기업명부에 대한 내용도 편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

2. 국제 무역 및 경제 세계화에 대한 정책적 의문

□ 거시 계정 관점

- 편람은 기존 통계들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적 필요성과 글로벌 체제의 무역, 금융, 환경, 사회통합과 관련된 측정문제를 강조
- 생산과 소득, 소비와 금융, 천연자원의 급속한 세계화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중복 계상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생산, 투자, 소득, 소유권, 자산과 부채의 기본적인 세계화 흐름은 왜곡되어 있음
- 편람은 통화 및 금융 규제 정책, 세금과 투자 정책, 무역 정책, 개발 정책, 세금 정책, 지식 재산권 보호, 수출보조금 정책 등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음

- 자료 공유 촉진과 개발자원 추가 부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확장 계정의 가치를 설명하는 활동이 필요함

□ 위성 계정 관점

- GVC 분석 능력은 회사와 산업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국민계정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질의에 다음과 같은 해답을 줄 수 있음
 - GVC 관점에서 한 국가의 비교우위 부문 식별
 - 내수기업이 따라가야 할 기업발전 경로 식별
 - 개발 아젠다에서 다국적기업 역할의 정도
 - 수출에 포함된 국내기업의 부가가치 정도
 - 세계화와 관련된 기업들과 산업의 양
 - 국내경제에 대한 GVC 연관 효과
 - GVC 관련 기업의 특성과 전반적 생산성, 고용, 임금에 대한 영향
- GVC 부문과 관련한 정책적 질의는 권역 및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람의 다양한 부분에 언급되어야 함

3. 거시 경제 계정

□ 글로벌 투입 산출표

- 40개국을 포괄하는 국제투입산출표 데이터베이스(WIOD)와 61개국을 포괄하는 OECD TiVA 데이터베이스처럼 글로벌 IOT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음. 새로운 시도는 2017년부터 매년 유럽 국가들의 투입산출표와 공급사용표를 발표하려고하는 Eurostat의 FIRARO(Full International and Global Accounts for Research in Input-Output Analysis)임.
 - 이 3가지 시도는 국민계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해 조정된 IOT와 SUT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 사용표와 상품 수준의 재화무역, 확장 국제수지 분류에 의한 서비스무역을 포함하고 있음.
 - 이 같은 구조는 생산성 자료, 노동계정(성별, 연령별, 산업별 노동시간 등), 자본지표, 환경계정 등과 연결될 수 있음

- 글로벌 IOT를 만들기 위해서, 양자간 무역 비대칭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국제 무역통계 OECD 작업반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연간보정 방법(수입자료는 원자료보다는 상품을 배송한 나라의 자료를 사용)을 이미 마련하고 있음
- 국제기관들은 무역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 Eurostat의 단일 시장 통계(SIMSTAT)와 외국인직접투자(FDI) 네트워크와 같은 마이크로데이터 교환 프로그램은 더 활발하게 이용될 것이며, 상품 수준의 무역 비대칭은 더 조사될 것임.
- 이 같은 측면에서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통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함

□ 세계 KLEMS

- KLEMS(K-capital, L-labor, E-energy, M-materials, and S-purchased services)로 알려진 비용 분류 기준의 중간투입으로 생산계정을 분해하는 것의 정책적 관련성과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함
- 전문가 그룹은 관련 통계의 KLEMS 작성을 권장하기 위해 편람의 통계적 구조는 노동 및 자본서비스 계정과 협력을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 OECD-WTO TiVA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61개국, 34개 산업을 포괄하고 있음. TiVA는 생산과 소비, 무역 플로우를 그것들의 부가가치 부분으로 분해하고, 수출의 외국인 비중, 제조업의 서비스 비중 등과 같은 세계화 지표를 제공함
- TiVA가 제공하는 세계화 지표는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함. 특히, 경제들 간의 상호연결성 분석과 일자리와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
- TiVA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확장 SUT는 외국인 소유 기업, 내국인 소유 기업, 다국적 기업을 기업규모, 무역강도로 분해한 확장 공급사용표 OECD 전문가 그룹의 도움아래 개발되어야 함
- 확장 SUT 작성은 외국 법인 통계(FATS), 구조 기업 통계, TEC 등과 같은 기존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개발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확장 국민 SUT를 만드는 것은 덜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음

- 한정된 수의 기업만이 국제무역과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외국인 기업이기 때문임
- 확대 개발의 초점은 기업 이질성과 각 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에 맞춰질 수 있음
- 우선 순위 측면에서, 국가통계기관들은 GVC 분석을 위한 기업의 핵심 특징(외국인 소유권 같은)을 담고 있는 기업명부를 개발해야 함

□ 확장 국제·글로벌 계정

- 편람의 목적은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안내와 무역과 투자, 소득, 생산의 측면에서 글로벌 상호의존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또한, 무역과 투자, 금융 및 재정 정책, 환경 정책 등과 같은 경제 개발 정책을 더 잘 알리는 것도 편람의 목적임
- 편람은 확장 국제·글로벌 계정, 국민계정, 국제 수지에 대한 통합된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음. 이들 계정은 생산, 소득, 지출, 자산, 부채, 기업특성으로 세분화된 지역간, 국가간, 산업간 환경적, 경제적 거래의 분해와 연결을 제공함
- 편람은 추가로 부가 가치 기준 무역과 수지를 보여주는 확장된 국가표의 예를 제공할 수 있음
- 계정의 관점에서 좀더 깊이 살펴보면, 해결책은 다음의 역할을 하는 확장된 혹은 부가적인, 위성계정의 집합인 것으로 보임
- 2008 SNA, BPM6(the 6th edi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BD4(the 4th edition of the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같은 핵심계정의 보충
- 기존 통계로 만족되지 않는 정책적 필요에 대한 강조
- 위성계정은 기존 계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소유권과 회계구조에 대한 실험들을 제공할 수 있음
- 편람은 각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모듈 구조를 가질 것임. 또한 편람은 범위와 계정구조,

통합 기업·국제 무역 통계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GVC 확장 국민 공급사용표와 관련 생산물 및 산업 분류를 서술할 것임

4. 통합 기업 국제 무역 통계

□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GVC)

- GVC는 제품 구상에서 생산의 다양한 단계(최종소비자에게 운송, 사용후 처분까지 포함)까지 재화와 서비스 만들어 내기 위한 활동, 기업기능, 제도적 환경과 가치사슬의 영향력 등의 전 영역을 지칭
- 1990년 이후로, 학계와 정책연구소들은 다양한 산업의 GVC를 광범위 하게 분석했음. 이 같은 분석은 GVC 방식의 튼튼한 개념적 기초와 GVC에서 기업의 지배형태를 알려 주었음.
- GVC 분석은 산업연관자료, 개인·무역 명부와 자료, 산업현장 연구 등과 같은 상세한 국제 무역통계가 필수적임.
 - 개별기업수준의 미시자료 사용은 비밀보호 문제를 야기하긴 하지만, 기존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구조기업통계, 기업명부, 상업무역통계와 같은 전통적인 자료에 추가적인 정보를 붙임으로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

□ 공장없는 상품 생산자(Factoryless Goods Producers)

- 세계화 측정에 관한 개념적 발전은 2008 SNA에서 이미 소개되었고, 국민계정 개념과 관련된 세계화에 대한 조작적정의 작업도 추가적으로 뒤따름
- 현재,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투입재의 소유여부(소유했으면 제조업자, 소유하지 않으면 도소매업자) 따른 국제산업분류(ISIC) 규정은 공장없는 (factorless) 기업들의 구분에 오해의 여지를 만들
- 글로벌 생산 작업반은 공장없는 상품 생산자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권고
 - 부가가치의 50%이상이 지식재산 생산품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 평균적인 무역 마진보다 높은 경우
 - 직원의 구성이 전형적인 구성과 동떨어진 경우

- 작업반은 공장없는 상품 생산자(FGP) 기업을 도소매업보다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인식하도록 권고
 - 공장없는 상품 생산자의 산출물은 상품으로
 - 도급업자의 산출물을 서비스가 아니라 상품으로
- 이 같은 경우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구분이 매우 희미해질 것임. 전문가 그룹은 공장없는 상품 생산자 분류 기준의 변화가 있을 경우 그 것을 따를 것임

□ 다국적 기업 통계와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 기업 및 무역 통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여부는 확장 공급사용표의 기업 이질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업특성임
 - 국내 경제에서 필요 자원을 조달하는 다국적 기업과 해외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다국적 기업은 생산성, 부가가치와 고용을 발생과 성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임
- 전문가 그룹은 대기업·복합기업의 기업 이질성을 밝히기 위해, 세계화와 관련한 기업 특성들이 기업명부에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에 동의함
 - 이 기업특성들은 기초 경제 및 무역 통계와 연결되어야 함. 그것은 확장 공급사용표 작성 자료 품질 향상, 모집단 품질 향상, 타당성 높은 조사, TEC 및 STEC 작성, 기업수준의 재화와 서비스 연결에 기여할 것임
- 경제 및 무역 통계를 사회 통계와 연결하는 것은 네델란드가 보여준 것처럼 마이크로데이터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줌
 - 네델란드는 일자리, 부가가치, 인건비, 무역 및 상품에 대한 정보가 다국적 기업은 물론 내수기업에 연결되어 있음
- 전문가 그룹은 마이크로데이터로 작업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밀 보장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분류

- 기업 기능 분류는 기업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포착과 생산의 과정에서 기업 서비스의 역할 이해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 지금까지 EU 국가, 캐나다, 미국, 한국 등의 나라들이 기업 기능 조사를 진행했음
- 2007년, 2012년 EU의 조사는 기업 기능에 따른 국제적 일자리의 재배치와 자원 조달 정보를 수집함. EU는 이제 기업 기능 분류 개정에 대한 제안을 준비중임
 - 이 개정안은 기존의 5개 기능 분류를 좀 더 세분하였음.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술 제공과 개발에서 연구개발(R&D)를 분리하고 제조서비스를 추가함
 - 내년까지 기업 기능 국제 분류가 국제 통계 모임에서 동의를 받으면, 2018년 EU의 정식 규정이 될 것임
- 2016년 3월, 경제분과의위원회(BEC)에서 5번째 분류 개정안을 통계위원회에 상정할 것임. 이 개정안은 무역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이는 공급사용표 작성에 유용
 - 이전 개정안과 비교하여, 5번째 개정안은 GVC 관련 무역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와 특정 차원이 추가됨
 - 1) 일반적으로 처리된 상품과 특수하게 처리된 상품의 구분
 - 2) 일반적인 서비스와 특수(혹은 소비자 주문형) 서비스의 구분
- 전문가 그룹은 가치 사슬 모델(VCRM)이 위성계성 구조에서 GVC를 기술하는 것을 약속함. 가치사슬 모델은 GVC 분석을 위해 산업분류를 사용함에 있어, 국제산업분류를 좀더 세분화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음
- 가치 사슬 모델은 경제활동분석을 위해 다음의 4가지 요소를 제안함
 - 부가가치 활동 혹은 기업 기능 : 연구, 상품개발, 디자인, 생산, 물류, 판매촉진, 전략적 관리
 - 공급 사슬 : 원재료로 시작해서 부품생산, 조립, 최종 상품 생산, 유통, 판매로 계속되는 산업의 투입 산출 과정

- 최종 사용 시장 : 많은 중간투입 상품들이 다른 산업의 최종 상품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분리된 개념
- 기업 환경 외부 지원 : 내부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원하는 국내 및 국외의 실체. 기업 환경 지원은 6가지 분류를 나뉘질 수 있음
 - 1) 사업, 정보, 기술 서비스
 - 2) 교육, 검사, 훈련
 - 3) 행정 서비스
 - 4) 기반시설과 자본조달
 - 5) 비정부기관(NGO)과 표준
 - 6) 무역과 전문조직
- 국제산업분류(ISIC)와 중심상품분류(CPC)는 GVC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것과 확장 GVC 산업 공급사용표를 작성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존 국민계정 공급사용표와 연계를 위해 국민계정 수준을 유지할 것임
- GVC 이론적 배경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 생산에서 주인(리더) 회사와 중간 및 주 상품생산자와 서비스 생산자들 간의 지배관계의 유형임. 이 지배관계는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1) 동등한 입장의 시장 관계
 - 2) 모듈 관계
 - 3) 상관 관계
 - 4) 의존 관계
 - 5) 계층적 관계(소유권 관계가 있는)
- 이 5가지 유형은 3가지 핵심 변수 사용으로 설명됨
 - 1) 거래 과정과 상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복잡성
 - 2) 분류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의 정도
 - 3) 구매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 전문가 그룹은 GVC에서 이 지배관계의 유형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함

5. 부가 가치 사슬 위성 계정 작성

□ 부가 가치 사슬 위성 계정

- 연구자들은 경제활동과 생산품의 관점에서 수많은 특정 GVC 지도를 그려왔음
 - 특히, Duke 연구자들의 코스타리카, 브라질 의약 장비 산업에 대한 GVC 분석은 연구개발, 부품, 생산, 조립, 유통, 판매촉진, 사후서비스 등의 GVC 전 단계를 밝힘
 - 의류 산업, 자동차 산업, 관광 산업 등에 비슷한 연구가 있었음
- GVC 분석은 특정 나라들에서 가치 사슬 “차이”를 밝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제품 개발 국가와 제품 조립 국가의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임
- 국가수준의 GVC 분석은 일자리와 기술,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정책 관련적일 필요가 있음
 - GVC의 일부분으로 몇 개의 대규모 산업만 존재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이 고부가 가치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임
- 동일한 GVC 산업을 가진 나라들이 GVC 관련 통계 및 계정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큰 통계적 이익을 가져다 줌
 - 이 같은 국가들간의 통계적 협력은 가치 사슬의 권역적 파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시장 접근성, 협력의 낮은 거래비용, 권역 통합 정책 등에서 기인하는 글로벌 생산 사슬의 권역화 양상의 출현에 통계적 협력은 특정 사슬의 국가들로만 한정될 수 있음
- 전문가 그룹은 국가통계기관들의 GVC 분석에 대해 관심을 표명. 또한 GVC 분석을 위한 정보가 기존 자료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함. 그리고 기업 수준 자료의 기밀유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재언급
- 전문가 그룹은 공통 관심 GVC를 위한 확장 공급사용표 작성에 국가 통계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GVC 분석은 초기에는 자원 집약적이지만 환경경제계정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표준화 될 수 있을 것임

- GVC 산업의 시범 작성에 대한 프로젝트 및 워크샵에서 무역, 국민계정, 국제수지 통계 GVC 분석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GVC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는 여러 분야의 모임에서 협력해야함

□ 북아메리카 권역 프로젝트

- 권역 SUT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예처럼 국가통계기관들의 협력으로 개발될 수 있음. 북아메리카 권역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다음의 작업들이 실시될 것임
 - 국가들간의 자료의 일치성과 활용성에 대한 평가(예, 기업분류, 연도, 무역자료 등)
 - 데이터 차에 대한 분석과 조정
 - 공통 산업분류틀 개발
 - 공통 기업 유형 분류에 기반한 기업 이질성 자료 처리
 - 가능한 공통성이 높은, 각각의 나라의 확장 SUT 구조 정의와 작성
- 이 작업의 결과를 TiVA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그 작업이 완료되면, GVC 분석에 단단한 구조틀을 제공할 것임
 - 북아메리카 권역 프로젝트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정책적 의지, 단계적 진행, 협력 등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6. 향후 계획

□ 회의 정리

- 일반 통계 구조틀의 관점에서, 편람은 다음과 같은 확장 혹은 보충 위성 계정의 집합체 형태여야 함
 - 핵심 계정의 보완
 - 핵심 계정들의 간의 연결고리
 - 기존 통계로 만족되지 않은 정책적 필요성 강조

- 통계 구조들은 포괄적이며, 모듈형태임. 이는 각 나라에 관련성과 이익이 더 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함임
- 국가통계기관들은 우선적으로 통합 기업, 투자, 무역통계의 품질 개선에 맞추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기존 양자 무역 비대칭 문제의 해결, 서비스 자료의 품질 향상, GVC 관련 확장 통계와 계정의 검증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함
- 편람은 가능한 많은 기존의 자료, 간접추계 방법, GVC 관련 연구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
- 편람의 초안은 국민계정, 국제수지, 기업 및 무역통계인, 분류 전문가 등과 같이 많은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GVC 학계, 정책 결정자 등의 참여 필요. 또한 전문가 그룹은 개발도상국가도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
- 편람의 제목은 거시 경제 관점과 기업 및 무역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일정

- 전문가 그룹은 다음에 동의함
 - 다음 단계를 위한 시간표 3월 중 고지
 - 편람의 윤곽은 충분한 검토 후 고지
 - 특정 내용에 대한 윤곽이 한번 승인을 받으면, 구성원들은 그 맥락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함
 - 편람은 2018년 중반까지 마무리하고, 2019년 통계위원회에 상정 예정
 - 그룹 구성원간의 의견 및 자료 교환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질 것임
- 전문가 그룹은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편집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일부 조직은 이미 편집위원회 참여를 표명함
- 다음 전문가 그룹 모임은 잠정적으로 2016년 말로 예정

붙임 1. 회의참가자 명단

| 국가(소속) | 이름 |
|-----------------------|-------------------------|
| Cape Verde | Silvina Santos |
| Canada | André Loranger |
| China | Huaju Li |
| Colombia | Carlos Prada |
| Colombia | Lilian Navas |
| Costa Rica | Hugo Mora |
| Denmark | Peter Boegh Nielsen |
| India | Nivedita Gupta |
| Italy | Stefano Menghinello |
| Republic of Korea | Hyun Kim |
| Republic of Korea | Younghun Kim |
| Mexico | Gerardo Durand |
| Morocco | Houssein Ouljour |
| Netherlands | Martin Luppés |
| South Africa | Gerda Bruwer |
| Thailand | Wirongrong Niamthanom |
| United Kingdom | Michael Hardie |
| United States | Sally Thompson |
| Vietnam | Thi Minh Thuy Le |
| Eurostat | Ani Todorova |
| Eurostat | Axel Behrens |
| Eurostat | Isabelle Remond-Tiedrez |
| IMF | Robert Dippelsman |
| IMF | Thomas Alexander |
| OECD | Nadim Ahmad |
| UNCTAD | Onno Hoffmeister |
| UNCTAD | Steve MacFeely |
| UNCTAD | Ekaterina Chernova |
| UNSD | Ivo Havinga |
| UNSD | Ronald Jansen |
| WTO | Hubert Escaith |
| Harvard | Prof. Dale Jorgenson |
| UNSD consultant | Steve Landefeld |
| MIT | Timothy Sturgeon |
| Global Affairs Canada | Aaron Sydor |